

한국, 하계올림픽 참가 선수 200명 무너질까

오는 7월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체 구기 종목에서 잇따라 본선 진출권 확보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전 선수만 따지면 1976 몬트리올올림픽 이후 최소 규모(하계 대회 기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하루 전인 지난 23일 현재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한 한국의 단체 구기 종목은 여자 핸드볼이 유일하다. 11회 연속 본선 진출의 대기록을 썼다. 남자 축구는 오는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3세 이하(U23) 아시안컵에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이 밖에 농구, 수구, 럭비, 하키가 남녀 모두 본선행 불발이 확정됐다. 남자 핸드볼과 여자 축구도 예선에서 탈락했다. 배구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남녀 모두 본선 진출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 단체 구기 종목 출전이 '역대급'으로 줄면서 출전 선수



▲ 지난 제32회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모도 대폭 감소가 예고됐다. 1976년 몬트리올 대회에 50명의 선수를 출전시켰던 한국은 1980년 이후 대회에는 200명 이상을 꾸준히 파견해왔다.

안방에서 열린 1988년 서울 대회가 47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가 204명으로 가장 적었다. 리우 대회 때 단체 구기 종목 출전이 여자 배구, 여자 핸드볼, 여자 하키, 남자 축구에 그치며 1980년대 이후 최소였다. 210명의 선수가 나섰던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때는 남녀 배구, 남녀 핸드볼, 여자 농구, 야구(시범종목)에 출전했다.

232명의 선수가 출전한 2021년 도쿄 대회 때 한국은 남자 축구와 남자 럭비, 야구, 여자 핸드볼, 여자 농구와 여자 배구까지 6개 단체 구기 종목에 출전했다. 야구는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빠졌다.

파리올림픽의 정식 종목은 32개다. 앞으로 개인 종목에서 출전권을 더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리우 대회 때와 비슷하거나 적은 선수가 파리에 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출전 선수 200명 선이 무너지면 몬트리올 대회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 된다.

“오타니가 한국 스타 밀어냈다”

'미국 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의 프레젠테이션 파트너이자 마케팅 파트너, 그리고 주관 중계권자인 쿠팡플레이가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의 스포셜 게임 및 티켓팅 전체 일정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발표한 일정을 보면 3월 17일에는 오후 12시 다저스가 키움 히어로즈와, 오후 7시에는 팀 코리아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맞붙는다. 이어 18일 오후 12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G 트윈스가 격돌하고, 오후 7시에는 팀 코리아와 다저스의 경기가 열린다. 팀 코리아는 김혜성(키움 히어로즈), 노시환(한화 이글스), 문동주(한화 이글스), 원태인(삼성 라이온즈), 윤동희(롯데 자이언츠) 등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 MLB 서울 시리즈 공식 포스터. 사진=쿠팡플레이

스포츠 게임 4경기를 포함한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의 모든 경기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쿠팡은 이날 공식 포스터도 공개했다. 포스터 정중앙에는 오타니(LA다저스)가 있고, 양 옆으로 원태인(삼성 라이온즈)과 김혜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자리했다. 중간 부분에는 장재영과 송성문이, 세 번째 줄에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김혜성(이상 키움 히어로즈)과 오지환, 김현수(이상 LG 트윈스)의 모습이 담겼다. 그리고 무키 베츠(다저스)와 매니 마차도(샌디에이고)도 자리했다.

이 포스터를 두고 일본매체 디앤서는 이날 "한국인 스타를 밀어내고 오타니가 가운데에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서울시리즈의 일정 발표와 함께 공개된 포스터에는 다저스 유니폼

차림의 오타니가 가장 크고 중앙에 있다. 오른쪽에는 지난 시즌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왼쪽에는 국가대표 주전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투수 원태인이 있다. 오타니가 이 한국 스타를 밀어낸 셈이다"고 했다.

또 "그 밖에 지난해 한국시리즈 MVP 오지환과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뛰었던 외야수 김현수, 베츠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작게 있다"고 설명했다. 타티스 주니어가 아닌 마차도인데 매체가 이를 잘못 짚은 듯하다.

일본 팬들의 반응도 전했다. 일본 팬들은 "서울 시리즈 캠페인 이미지에 오타니가 한국 선수에 섞여 센터에 자리했다", "한국 시합인데도 오타니가 가운데 있다" 등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다.

SC FOOT AND ANKLE CENTER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 레이저 고품이 발톱 치료 Special ★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